

2) 유다가 자비를 구하다 (44:14-34)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44:14-15/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요셉은 이들의 도착을 열망하고 있었음.

'그의 앞에서 엎드리니': 요셉의 자비만을 바라는 형제들의 곤궁한 상황.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멸시.

44:16/ '유다가 말하되': 형제들 사이에서 상승하는 요셉의 지위.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 체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가 인정한 죄는 그릇을 훔친 것이 아닌 잃어 버린 형제에 대한 것.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 형제들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베냐민과 구별시킴.

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44:17/ '요셉이 이르되...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선고.

- 형제들은 아우를 포기하던지 구하던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

44:18/ '유다가... 이르되...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요셉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유다.

44:19-20/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이 에피소드의 구심점.

- 첫 방문에서 연로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동정심에 호소.

- 그러나 간접 혐의에 대해서는 섬게하게 생략.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어린 아들)': 요셉이 편애 받던 지위를 묘사(37:3), 그러나 베냐민의 어림을 강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 아버지의 사랑하던 아들은 죽고 어린 아들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함.

* 유다의 야곱을 향한 감정이입은 유다와 형제들의 도덕성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를 증명.

- 야곱이 베냐민에게 가진 각별한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자비를 애원하는 근거로 삼음.

44:21-23/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 유다는 요셉이 베냐민의 접견을 요구함으로써 지금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생생하게 묘사.

'그 아이는...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요셉의 요구는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항의.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요셉은 완강하게 베냐민의 접견을 요구.

44:24-26/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은을 발견한 것과 야곱이 베냐민 보내기를 거절한 것을 생략.

'사오라 하시기로... 내려갈 수 없나이다...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 양식을 다시 사오라는 야곱의 지시와 베냐민 없이 갈 수 없다는 형제들의 대답을 강조.

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게 하리라 하니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
 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
 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
 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
 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 44:27-29/ '주의 종 우리(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연민을 자극하기 위해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 부름.
 - 라헬을 '내 아내'라고 하고 요셉과 베나민을 '두 아들'이라고 부른 야곱과 대조적.
 '틀림 없이'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와 겪은 일은 전혀 예상 밖의 사건임을 강조.
 - 유다의 설명으로 요셉은 자신의 실종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해.
 '내게서(내 얼굴에서) 데려 가려하니':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는 요셉의 경고에 대한 언어 유희.
 - 요셉의 얼굴 앞에 내놓기 위해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베나민을 데려와야 했음.
 44:30-32/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요셉의 상실을 상기시킴.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아버지의 죽음의 경고가 실현될 것.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했던 보증을 개관.
 44:33-34/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여 베나민을 풀어줄 것을 요구.
 - 유다의 이력 가운데 도덕적 정점.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감정이 북받쳐 격식을 잊은 유다-주, 종'을 생략.
 - 아버지의 비통함 죽음보다 자신의 남은 생을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겪는 편을 택함.

7.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냄 (45:1-28)

✦ 주요내용

- 1) 권력에 의해 강제된 복종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 꿈이 성취.
- 2) 소원해진 '사람들'이 다시 요셉의 '형제들'이 됨.
 - 요셉에게 친절히 말할 수 없었던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를 나눔.
- 3) 화해를 시작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감동적인 자기 희생과 아버지와 가족을 향한 사랑의 발화.
- 4) 바로가 야곱을 초청함으로써, 가족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의 두 궤도가 일치를 이룸.
- 5) 요셉이 증오와 보복을 깨뜨릴 통찰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초월하는 더 큰 상황과 의미를 인식했기 때문.

1) 요셉이 자신을 알리다 (45:1-15)

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
 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 45:1-2/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철저히 무력화됨.
 '그 형제들에게': '그 열 사람(43:33; 43-44장에서 9회)'이라는 표현이 '그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로 바뀜.'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힘- 죽은 요셉의 부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 애굽의 통치자로서 감정을 노출하지 않으려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함.

-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5:3-4/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자신을 밝힌 요셉의 초점은 자신이나 자신이 겪은 불의가 아니라 아버지.

- 야곱에 대한 요셉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3-13하) 요셉의 지배적인 관심사

- 이 시점에서 요셉과 유다의 마음(44:33)은 아버지와 가족을 향해 하나가 됨.

'형들이... 놀라서': 형제들이 받은 충격은 공포의 감정. 바로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이 가정사가 되는 순간.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신을 확인시키기 위해 불려서 과거의 일을 언급.

45:5-7/ '그리고 이제(5, 8절: 개역개정에는 생략)': 경계를 설정.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라고 형제들을 설득함으로 형제들의 두려움을 해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다'는 '(선지자의) 파송을 의미.

-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일로 파송된 것.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 하나님께서 요셉을 파송하신 목적: '남은 자(후손)의 보존'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 야곱의 가족을 온 세상 주민의 생존한 '남은 자'로 인식(노아)- 야곱의 가족이 없으면 인류에 미래가 없음.

- '남은 자' 신학은 교회를 예견 - 신자를 통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심.

45:8/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노예가 된 책임이 궁극적으로 형제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

- 형제들의 죄책은 사실이지만 더 고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파악.

- 연속해서 꾸었던 꿈으로부터 하나님이 요셉의 출세를 이끌었음을 확인.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특별 조연자.

- 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 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 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 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 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45:9-11/ '속히(13절에 반복)... 지체 말고': 요셉의 지시의 문학적 경계-즉시 실현 가능한 재회에 대한 기대.

'아버지의 아들 요셉', '내 아우 베냐민(12절)': 요셉의 메시지에 담긴 진정성의 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

'내게로 내려오사', '나와 가깝게 하소서(10절)', '내가... 봉양하리이다(11절)': 사적인 감정이 담긴 애원.

'고센 땅에 머물며': 바로의 승락 이전에 요셉은 이미 가족들의 부양을 계획함.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고향을 떠나기를 꺼릴 야곱을 설득해야 하는 요셉.

45:12-13/ '당신들의 눈과... 내 입이라': 형제들은 사자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베냐민은 야곱에게 더 효과적인 증인.

45:14-15/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자애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들.

-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가족간의 화해가 이뤄졌음을 암시 -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37:4)'

2) 야곱이 요셉 소식을 듣다(45:16-28)

- 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23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45:16-20/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에 대한 감사를 반영.

'요셉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요셉의 사적 요청을 상기시킴(4, 9절).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영구적인 정착을 의미.

- 편하게 여행해서 새로운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약속으로 형제들을 안심시킴.

45:21-24/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 요셉의 명예로운 지위를 증명. 수레는 야곱에게 바랐던 효과를 일으킴 (27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바로의 지시를 넘어서서 호화로운 의복을 입힘.

-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지어줌.

- 요셉이 애도이 기간이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선포.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시기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베냐민에게 더 후한 재물을 선사.

'길에서 다투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덮기 위해 베냐민에게 해를 가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

- 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5:25-28/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겪을 이주를 예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애굽의 통치자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는 요셉의 꿈에 대한 형제들의 불신을 상기시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아들들에 대한 불신을 반영.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19절 참조.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 이를 나라에 대한 관심.

'족하도다(라브)... 요셉이 살아 있으니': 요셉과 관련된 형제들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임.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 내가 애도하며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37:35)며 탄식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심.